

# 양현주 졸업생

전라남도 보성군 치매안심센터 소속 작업치료사



## Q1.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맡으신 업무와 주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내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대상별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가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2. 우리 대학 작업치료학과에 입학 후 목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이던 시절부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치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단순히 학과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 실습에 적극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쌓고자 했습니다.

## Q3. 노인 중심의 작업치료에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학부 시절, 전공 공부 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 실습에 적극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인지재활과 지역사회 기반 작업치료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보건복지부 정책과 작업치료사로 나아가기 위한 업계 분석, 면허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Q4. 전공 지식으로

###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전공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보성 군민들의 치매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보성군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10년간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연구와 자원봉사 활동의 병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Q5. 모교 후배들을 위해 특강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작업치료학과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의점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작업치료사로서의 진로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후배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실제 임상 실습 연계를 통해 현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Q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전공을 통해 배운 이론은 현장에서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실습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직접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는 그저 치료자가 아니라 대상자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동반자'이기에, 단순 업무 수행을 넘어, 지역과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시 '이 분야에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길 바랍니다.